Digital & IT

유·무선 통합서비스

휴대전화로 수강신청·결제 자유롭게

통신사들 인터넷 전화 결합 상품 잇따라 출시

저렴한 요금·사용자간 무료통화에 인기예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동통신사에서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 전화를 쓸 수 있는 유무선융합·대체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통신사간 요금 전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이용해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는 수강신청이나 수업시간표 확인, 그룹웨어를 통한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 전망이다.

◇무선인터넷 지역이나 지정지역에선 10초당 11.7~13원= 유무선융합 서비스는 '휴대전화+인터넷전화'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지역에서는 인터넷전화로 변경해 쓸 수 있는 서비스다. WiFi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반 요금제로 통화를 하지만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인터넷 전화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KT는 FMC(유무선통합·Fixed Mobile Convergence)용 휴대전화를 모두 6종 출시했다. KT의 FMC폰은 WiFi지역에서는 10초당 13원의 인터넷전화 요금이 적용되며 일반 전화는 10초당 18원의 요금을 내게 된다. 유선전화로 발신하는 경우도 3분에 324원이던 요금이 WiFi망을 통하면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과금되면서 3분에 39원으로 줄어든다.

LG텔레콤은 아직 FMC폰이 출시 전이지만 2·4분기 이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전화 고객이 가장 많은 통신사인만큼 출시되면 파격적인 요금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FMC폰 대신 FMS(유무선대체·fixed Mobile Substitution) 서비스(T존 서비스·2천원)를 내놓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자신이 지정한 서비스 지역 내에서 휴대전화끼리 통화할 때 요금은 10초당 13원이 적용된다. 통상 10초당 18원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저렴하다. 게다가 할인 지역 내에서 휴대전화로 유선전화나 인터넷전화로 전화를 걸면 3분당 39원이 적용된다.

◇학교나 기업에서 수강신청·결제 자유롭게= SK브로드밴드는 광주교육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을 위한 FMC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교대 교직원은 캠퍼스 내에서 FMC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 전화 요금제로 통화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학생들도 교내에서 인터넷 전화 요금제로 통화하고 학내 학사일정이나 강의시간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 협력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KT도 지난해 전남대학교와 MOU를 체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가 제공되면 학내에서 교직원간 무료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며 그룹웨어 서비스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에서 서비스 신청을 한 후 FMC폰을 이용해 학내에서 무료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농촌사랑 함께해요" 10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농협 광주본부에서 열린 '농촌사랑 20·10 총력운동 결의대회'에 참가한 정종순(가운데) 본부장과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운동은 20주 동안 도·농 교류사업 활성화 등 10대 핵심 사업을 중점 실천하는 것이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국세행정 신뢰도 광주청 매년 상승

6개 지방청 중 3위

광주지방국세청이 '2009년 종합신뢰도 평가'에서 전국 6개 지방청 중 3위를 기록했다.

10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한국갤럽 등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납세자 6천91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광주청의 종합신뢰도는 75.0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종합평균(73.2점)을 웃도는 점수다.

광주청은 대구청(83.4점), 대전청(77.1점)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부산청(73.7점), 서울청(73.4점), 중부청(71.8점) 순이었다.

광주청은 지난 2007년 1차 평가(66.2점), 2008년 2차 평가(73.8점)에 이어 꾸준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의 종합 신뢰도는 73.2점으로 전년도보다 1.4점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청이 탈세제보를 토대로 추징한 총 세액은 249억원이었으며, 전국 추징액은 4천621억원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金치'가 된 갈치

어획량 줄어 값 10년만에 최고

갈치 값이 10년 만에 최고로 뛰어올라 '금(金)치'가 됐다. 한파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3월 현재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갈치 1마리는 5천500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0%가량 가격이 상승했다.

갈치 값은 2008년까지 2천500원대로 안정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3월 3천300원으로 오르기 시작해 5월 4천500원대, 7월 5천100원대, 10월 5천300원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갈치값은 2001년 이후 시세만으로 볼 때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했다.

갈치 값이 이처럼 뛰고 있는 것은 어획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갈치 주산지인 제주 지역에 한파가 계속되면서 갈치 어선 조업량이 예년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멸종위기 참치

수출입 금지종 지정 움직임

국제사회가 참치를 '멸종 위기종(種)'으로 지정하려 해 결과가 주목된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면 국제적 거래가 금지된다.

당장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잡히는 참다랑어가 대상이지만 다른 지역의 참치류 전반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식탁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13~25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회의에서는 대서양과 지중해 연안산(產) 참다랑어를 수출입 금지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참다랑어는 참치류 중 최고급 어종으로, 주로 횟감으로 쓰인다.

모나코는 작년 10월 '대서양의 참다랑어 개체 수가 50년 전에 비해 74%나 줄었다'며 수출입 금지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찾아가는 납세 서비스

광주세무서 오늘부터 법인세 순회 설명회

광주세무서(서장 박득용)는 사업연도가 2009년 12월말 종료되는 법인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일부터 '법인세 신고안내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영세기업들을 위해 '신고 도우미 출장반'을 운영, 현장 상담을 실시한다.

광주세무서는 신고대상 기업이 모두 3천300개에 달함에 따라 순회설명회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화순 도곡농공단지 관리사무실(11일 오후 2시) ▲광주시 송암공단협의회 사무실(12일 오후 2시) ▲광주세무서 대회의실(15일 오후 2시, 4시) 순으로 진행된다.

'신고 도우미 출장반'도 오는 15~26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자기조정 신고법인, 비영리·당기순이익 과세대상 987개 법인이다. 신고 도우미 출장반은 전화(062-605-0408)로 상담 요청을 받아 현장에서 납세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방침이다.

광주세무서는 또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조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2009년 사업연도 종료 법인의 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율이 22% 인하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